

# 백두대간을 이해하는 첫걸음


글 -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@etnews.co.kr

을 이해하는 기본 이미지 △백두대간의 인식과 기록의 역사를 알 수 있다.

그럼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은 어떻게 다를까. 백두대간은 지리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, 태백산맥은 지질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의 지질구조선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.

백두대간 두 걸음 코너에서는 △왜 백두대간인가 △대간과 정간 13정맥이 지나는 지역들 △조선시대의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△택리지 속의 백두대간 △우리땅 산줄기 △고토 분지로와 조선산악론 △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등이 소개됐다.

백두대간의 고개에는 진부령을 시작으로 미시령, 한계령, 추풍령, 여원재 등으로 이어지는 15개 고개와 그 밖의 고개가 설명됐다. 날로 훼손돼가는 백두대간을 살리는 길도 소개됐다. 사이트는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역사의 이해를 통한 전통지리관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.

이 사이트에는 백두대간을 종주하거나 취재한 기사들도 상세히 수록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. 또 가을 백두대간을 직접 종주해 이 땅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종주를 안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.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백두대간의 참뜻을 알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한 자락으로 떠나보자. 

어느덧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다가왔다. 많은 사람들은 활동하기 좋은 가을에 산야를 찾아 나서곤 한다. 올 가을엔 인터넷 백두대간 사이트 (<http://www.angangi.com>)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를 먼저 돌아보고 실제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.

백두대간 사이트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. 특히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이 땅의 미래 주인들에게 백두대간 속에 담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알려주고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. 마치 아빠가 설명해주듯 자세한 설명이 눈길을 끈다.

이 사이트에서는 '백두대간은 이 땅을 이해하는 첫걸음'이라고 말한다.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백두대간 중심의 전통 지리관을 바탕으로 이 땅을 이해해 왔다고 한다. 백두대간에는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한 조상들의 세계관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.

그럼 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. 백두대간이란 이 땅을 동과 서로 크게 갈라놓은 산줄기의 이름이다.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울어 남쪽 대륙의 지리산까지 이르는 거대한 산줄기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백두대간 첫걸음을 보면 △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 △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은 어떻게 다른가 △백두대간



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.